광주 고교 강제배정 줄어든다

1차 3개교 선택…원하는 고교 진학 폭 넓어져

시교육청, 2008학년도부터 배정 방식 개선

2008학년도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크게 바뀐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현재 중 3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배정방식을 개선, 2008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앞서 '고등학교 추첨배정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 배정작업을 하는 등 행여 있을 문제점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별로 정원의 40%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60%는 나중에 선발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1차 우선 선발에서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교 수가 현행 2개교에서 3개교로 늘어나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2차 선발의 경우 현행처럼 강제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5개 학교를 지망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급적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중학교 졸업생 수를 고려해 광주지역을 고등학교 중심의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 내에서 학생들이 5개 학교를 지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배정 방식은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추첨이다.

광주시 교육청 장복일 장학진흥과장은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강제배정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지역 중학생 고교 배정에서는 대상 학생 1만5천805명의 63.7%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됐고, 나머지 36.3%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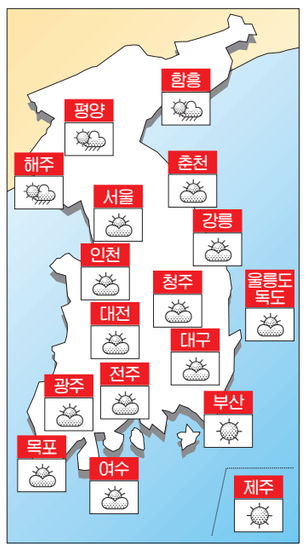
등록금 인상액 환불 찬반투표 10일 전남대에서 한 여학생이 대학 측의 올 기성회비 8.8% 인상에 반발, 등록금 인상액 환불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오는 13일까지 각 단과대학에 투표소를 마련해 등록금 인상액 환불 찬반투표 외에 ▲국립대 법인화 반대 ▲총장 선출권 및 비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늘 가린 구름

가끔 구름이 많겠다.

4월 11일 (음 2월 2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6~21℃
목 포	구름 많음	7~19℃
여 수	구름 많음	9~17℃
완 도	구름 많음	7~20℃
구 례	구름 많음	3~22℃
해 남	구름 많음	3~20℃
장 흥	구름 많음	3~21℃
고 흥	구름 많음	4~21℃
순 천	구름 많음	3~23℃
영 광	구름 많음	6~19℃
진 도	구름 많음	4~20℃
전 주	구름 많음	5~21℃
남 원	구름 많음	3~22℃
정 읍	구름 많음	5~21℃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7:56 19:56 썰물 00:03 14:05
여 수 밀물 02:42 14:51 썰물 09:38 21:20

▲해뜸 06:07 ▲해짐 19:01 ▲달뜸 02:09 ▲달짐 11:5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 씨						
최저/최고	8/21	11/17	7/19	6/20	8/19	7/20

광주 사립외고 설립 차질

보문학숙, 시교육청에 포기 의사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사립 외국어고 설립 계획이 차질이 빚고 있다.

지난해 5월 사립 외국어고 설립 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이 지난 2월 말 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 보문학숙은 당초 보문고를 외국어고로 전환하려 했으나 설립 제안서와 육영 의지, 재정투자 계획, 투자 규모 등에 있어 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보문학숙의 경우 개교 후 3년 동안만 학생장학금과 교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혀 사실상 설립이 힘들게 됐다"며 보문학숙의 설립계획이 백지화됐음을 밝힌 바 있다.

안 교육감은 당시 또 "올해 안에 사립 외국어고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인 내가 직접 나서 독지가를 찾고 있으며, 현재 2명의 독지가가 설립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2명의 독지가는 1천억원대의 재산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출향 인사 A씨와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B씨이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매입·실시설계 등의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독지가 중 한 사람이 외국어고 설립 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해도 2009년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치과 의료인 4,500여명 광주로

28·29일 '치과 엑스포'

치과의사·치위생사 등 4천500여명의 치과 관련 의료인이 광주에서 모인다.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치과 의료인의 축제인 'HODEX (Honam Dental Congress & Exhibition·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2007'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전북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호남지역 치과 가족들의 학술증진과 치과 기자재 전시 등을 통해 지역간 정보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위생사·치과 대학생·치과기공사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치과의사 초청강좌 ▲치기공사 초청강좌 ▲치위생사 초청강좌 ▲개원의 임상강좌 ▲문화강좌 및 개원설명회 ▲테이블 클리닉 및 포스터 발표 ▲기자재 전시회 등으로 이뤄진다.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광주시 치과의사회는 전국에서 모이게 될 임원진 등을 위해 상무지구에 100여 개의 객실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술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전북 치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6일 'HODEX 2007'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회장에 김낙현 광주 치과의사회장을, 조직위원장에는 광주시 치과의사회 배웅 수석부회장을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

올 여름 이상고온 없을 듯

기상청 "평년 수준 유지"

올해 여름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중국·일본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의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지역적인 편차를 나타내겠지만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봄철 엘니뇨 현상이 빠르게 정상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데다 현재로서는 여름철 고온 현상 발생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는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영국·미국 등 23개국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 대입제 사교육 격차만 벌렸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생과 부모의 학력이 석사 이상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생과 부모 학력이 낮은 경우 사교육비는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 990여명, 학생 4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10일 공개한 '대입정책과 사교육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3년 각각 23만1천원, 16만5천원에서 2006년 21만8천원, 14만3천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서울 강남 및 서울 기타 지역은 2003년 각각 60만원, 30만6천원에서 2006년 62만1천원, 39만2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버지 학력이 '중졸'인 경우 사교육비가 2003년 13만7천원에서 2006년 12만5천원으로 낮아졌지만 '대학원 석사'이상인 경우 38만원에서 51만5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교장 공모제' 9월 시범실시

초·중·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가 올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63개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학교 63곳 중 41곳에서 내부형, 6곳에서 개방형, 16곳에서 초빙교장형으로 공모제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실시 학교 5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문화대학원 성희롱' 철저 진상조사 촉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10일 대학 측의 공개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전남대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것은 해당 대학의 불명예와 수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학은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음 놓고 수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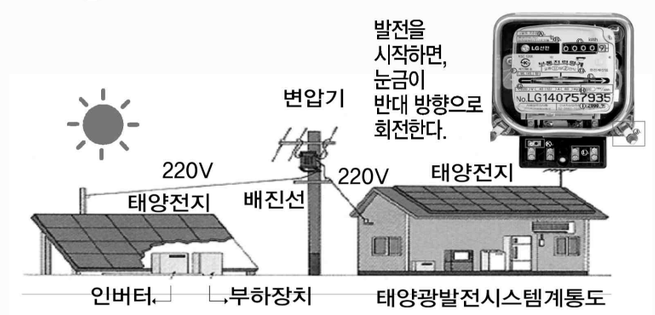
이 단체는 또 "전남대에서 과거 몇 차례에 걸쳐 교수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또다시 의혹이 제기된 사실은 대학에 관련 내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어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성희롱 방지 계획 공개, 해당 교수 징계, 피해 여학생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택 전기무료사용/전기료 누진세 해방/월 전기요금 4만원 이상 납부 주택소유자들에게 희소식!!

태양광 주택설비 소요자금 정부에서 60% 무상지원!!



태양광 설치시 전기료 무료로… 냉난방기 걱정 끝~~

태양광 주택 설비 무상지원금 신청접수

태양광 신규 보급 국가지원정책사업
무요금,무공해,무한정,무소음,무제어

❶ 정부 지원 태양광 주택 선청접수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율 확대(선진국수준인 5%이상)를 위해 2007년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❷ 태양광 자가 발전시스템 무료 전기 사용
태양광 발전기란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하여 필요에 맞게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발전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여 1kw당 716.4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❸ 정부무상 지원금 60% 전국시범주택 대상모집
정부무상보조금 60%, 전국적인 태양광 시범주택을 모집합니다

• 날짜 : 2007년 3월5일부터~(2007년 태양광발전 주택 정부지원예산내 운영으로 조기마감 예정)
• 대상 :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회 … 1년미만 신규주택 우선 순위
• 선정 : 에너지관리공단 심사

●정부 무상보조 태양광주택 사업부● 태양광 주택설치 전문기업

접수 및 상담문의 061)375-1065

서두르십시오! [병원·학원 최적지!]

특급입지!! 대단지 2,500여 세대 아파트 독점상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빠른 상권형성, 확실한 수요층, 안정적인 수익성
이젠 당신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고객과 성공사업의 기쁨만 생각하십시오.

2007년 6월 입점 예정

※상기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앞
동림동 다아빌딩 상가 임대!

떠오르는 신개발지구의 중심!
최고의 고객층이 형성된 황금입지를 잡았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진출입에 위치한 최대상권!
- 동림주공, 삼익, 삼라 등 반경 1Km 이내에 10,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

분양문의 062)531-3500 다아주택㈜